사회와 기독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

새문안교회 당회,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결정



정호영 안수집사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에 의한 약소국 쟁탈전의 심화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파쟁의 격화 및 지도층의 무능으로, 한반도에 일기 시작한 심상치 않던 파고는, 급기야 1910년 5백여 년간 이어져오던 조선왕조를 침몰시키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약 35년 간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는 처지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해방 후에도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비록 해방을 맞이한 기쁨은 컸으나 아직 우리 민족 스스로의 나라를 가지기에는 길이 멀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1948년도는 우리민족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로 인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 해 2월 26일, 유엔은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남한지역에서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1백 98명의 제헌의원들을 선출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제헌국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새 나라의 국정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제헌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17일에는 국회의장이 헌법을 서명·공포 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해방 3주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에 미군정의 종식과 더불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유엔은 12월 12일 이러한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48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날들 가운데 우리들이 흔히 기억하고 있는 날은 7·17 제헌절과 8·15 정부수립일 정도라고 생각되며, 오늘날 제헌국회 제1차 회의가 열렸던 5월 31일은 국회의원들과 입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회의 개원기념일 정도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며,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1백 98명의 제헌의원들은 임시의사당인 구총독부 건물 중앙홀에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다. 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조선왕조가 그 종말을 고한 이래 약 40여년만에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으나, 국가 조직면에 있어서 이제 막 뽑힌 국민의 대표 1백 98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처지였다. 아직은 미군정(美軍政)하에 있었으므로 기본적인 사회 질서유지 기능은 있었으나, 국가조직도 법도 규칙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때였다. 이 감격스런 역사적 현장에서 제헌의원들은 국회를 운영할 아무런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최연장 의원인 이승만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정하고 첫 국가회의(국회)를 열려는 순간이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원은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그 제1성으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개회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 새 나라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승만 임시의장의 이 발언은 다(多)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사회와 기독교

위해 그 발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승만 임시의장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임과 동시에 '민주국가'임을 확인하고, 제헌국회 제1차 회의를 '대한민국 제1차 회의'라고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독립국'은 일본이나 미국 등 그 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어있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며, '민주국가'는 북한의 공산독재집단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헌국회 제1차 회의는 평범한 국회의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국(開國)을 선포하는 회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백은 이승만 박사가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자라는 점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식석상에서, 더욱이 엄격히 순서를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국회의 속성으로 보아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며,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박사는 당시 목사 출신으로 제헌의원에 당선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드리고 싶은 충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민족을 역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신호인 것이다.

새 나라가 시작되는 감격스러운 날,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박사와 이윤영 목사를 통해 기도로 나라를 시작한 모습을 자손만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난 56년간 대한민국의 헌정사(憲政史)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국가사료인 137만여 쪽에 달하는 국회속기록 제1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영원히 기록되게 하셨다('기도문' 별첨).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은, 신생 대한민국을 처음 열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국민을 대표하여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윤영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귀중한 사실(史實)을 되살리고 의미를 찾아 기억하게 하며, 대한민국 국가회의(국회) 제1차 회의가 열렸던 5월 31일(또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날(1948. 5. 31)의 행사를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귀중한 사실(史實)을 재음미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특별한 섭리와 약속의 손길을 깨닫는다. 필자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입법부 공직자로 근무해 오는 동안에 국회속기록을 통해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난 수년 동안 새문안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모양 저모양으로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날의 일들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도로 시작한 매년 5월 31일을 한국교회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작년 11월 27일, 본교회 이수영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일동이 필자의 안내로 국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날 되어진 일들에 대해 크게 공감하였다. 이어서 12월 1일 새문안교회 당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면에서 나라가 어지럽고 민족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염려하는 소리가 높은 이런 시기에, 한국의 어머니교회인 새문안교회가 대한민국 탄생시에 기도로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에 되새겨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을 정한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필자 정호영 안수집사는 국회 도서관 관장으로 재직중이다.;편집자 주

* 아래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록 제1면에 기록된 전문을 발췌한 것이다.

◇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제헌국회 ◇

임시의장(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誠心)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의원 기도(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呈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